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40호
2월 8일
2020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교단의 신조와 역사, 성령론 등 전수

2020년도 타 교단 출신 교역자 연수교육

본 교단 총회가 주관하는 2020년도 타 교단 가입자 연수교육이 지난 2월 3일(월)과 10일(월) 양일간 총회본부에서 열려 타 교단에서 본 교단에 가입을 희망

망해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단의 주요신조와 교육과정, 목회방침 등이 전수되었다. 이번 연수교육과정에는 교단역사, 교단헌법,

구원론, 성령론, 교단신조, 총회행정 등이 강의되었다.

강사진으로는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를 비롯 부총회장 정익섭 목사, 교단 총무 이경진 목사, 서기 정영진 목사, 재무 한순남 목사, 총회 목회대학원 교수 강태진 목사,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 등 교단 임원진과 교수 등이 교단의 신조와 역사, 성령론, 총회행정 등의 주요내용을 전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전 교육내용에 대한 시험을 치렀으며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가진 수료식에서 수료증서를 일일이 나누어 주며 교단가입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믿음을 지킨 사람’



조용목 목사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6~8)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다”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이 믿음은 영혼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이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대단한 행운아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첫째 부분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예배와 봉사와 전도를 소홀히 여기도록 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과 유혹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공격합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람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일 2:15,16) 하였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진보에 결점이 되는 성냄, 이집, 교만, 성급함, 게으름, 시기 질투심 같은 성품을 죽이기 위한 싸움입니다.

둘째 부분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입니다. 모든 일에 시작은 쉬워도 끝까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핍박이나 고난이 있어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유혹에 이끌려 바울 사도를 떠나 간데마침될 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부분은, “믿음을 지켰으니”입니다. 옛날에도 그러하였지만 말세지 말에 이른 오늘날에는 복음을 혼합하게 하는 자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다음은, 믿음을 지킨 바울 사도가 기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였습니다.

첫째, “의의 면류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입니다. 여기서 말한 “의”는 사람의 노력과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는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둘째,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하였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결국 최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설 때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의 행복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셋째, 이러한 의의 면류관이 바울 사도에게만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며 심판을 위해 오십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평생이 비록 고난으로 점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들이 그리 중대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자난날들을 회상하고 앞날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와 같이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날이 행운의 날이고 살았던 세월들이 값진 날들이 될 것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제68차 총회 제10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10회 임원회가 지난 2월 4일(화) 오전 11시 녹동순복음교회(담임 백영자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적극 협력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합심함과 점진 환란스러운 나라의 안보와 교회의 사명강달을 위해 한마음을 모아 기도한 뒤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재무 한순남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정영진 목사의 기도, 총무 이경진 목사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이목사는 담전 1:12-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감사로 다스



리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때 감사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경진 목사의 축도 후 곧바로 의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정영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보고사항으로 부흥사회 자비량부성 성회를 비롯 각종 행사내용을 보

고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진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역자가임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전도사임명 청원 등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기타사항으로 타교단 가입자 연수교육, 2020년도 목사고시, 2020 전국 청년 동계연합수련회, 필리핀 화산폭발피해 도움요청 등의 내용과 3월 30일 개최되는 68-5차 실행위원회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는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필리핀 타알 화산 폭발로 엄청난 피해, 도움 요청

전쟁터 방불, 생필품 태부족 기도와 지원 절실

2020년 1월 12일(주일) 필리핀 타알 화산 폭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주민들과 성도들을 도와달라며 필리핀 하나님의성회에서 재난 구제 요청을 서신으로 보내왔다. 이에 필리핀 하나님의성회 관련 화산폭발 피해 상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 재난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기도와 협력을 당부드린다.

지난 1월 12일 발생한 화산 폭발은 필리핀 타가피카기, 바탕 가스 등의 지역 그리고 화산이 폭발한 곳에서 무척 먼 곳까지도 각종 화산재와 분출된 마그마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현재 레벨 4단계로서(아직 화산의 마그마가 분출 가능성이 높은 단계) 화산의 분출로 인해 필리핀 정부는 이 지역에 사람들을 임시 마련된 이재민처소로 옮기도록 하고 있고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148,000명의 이재민들이 497곳의 이재민 처소에 분산되어 나누어져 있으며 필리핀 적



십자사와 단체들이 돕고 있지만, 아직 물과 식료품, 생필품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분재의 먼지를 막을 마스크가 필요한 가운데 있다. 우리 소속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역에도 이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과 마스크의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화산폭발은 지난 2019년 12월에 있었던 2개의 태풍피해 후 발생한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 이에 필리핀 하나님의성회는 지난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있었던 필리핀 하나님의성회 리더십리더십(Leadership And Management Institute 2020: L.A.M.I: 매년 열릴, 우리 교단은 매년 파트너로 초대받아 참석하여 협력하고 있음)을 통해 구제요청을 해줌에 따라 보고드리며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태풍과 이번 화산으로 필리핀 하나님의성회 교회들이 피해를 입어 이와 같이 총회장 칼루사 목사 요청을 하였다. 매년 일어나는 태풍을 그리고 이번에는 화산폭발로 필리핀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기도 부탁과 함께 적극적인 물질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한다. 또한 필리핀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칼루사 목사님과 임원 목사들이 우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 세계 복음전파를 위해 애쓰시는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와 총회 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1. 후원금 입금계좌번호
국민 061701-04-180331(예하성)
2. 후원금 마감일자 : 2020. 2. 21(금)

“젠더자의 전역은 차별이 아닌, 형평성과 상식이다”

최근 군대에 남자로 입대한 사람이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다시 귀대하여 여성성으로 군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육군본부의 지난 1월 22일 당사자들전역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친동생에서 시민 단체에서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가 성정체성에 대하여 괴로움과 외로움을 겪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또 자신이 국가를 위한 임무를 앞으로 감당하겠다는 생각은 가상하다고 본다.

그러나 군대는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고 무엇보다 법률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부이다. 또 남자 군인에 선발된 것인데 중간에 성전환을 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비군 성별로 군 복무를 계속하게 된다면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다. 이럴 경우 대환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피와 땀을 통하여 지킨 나라이다. 한 마디로 엄청난 희생과 수고의 바탕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

이 이뤄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군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주장과 과도한 욕심으로 국가 군인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 이런 상황을 돕는 시민단체들도 국가 공동체의 공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언론과 일부 시민 단체들이 국가와 대다수의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탄압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우리 사회는 정상이 아닌 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할지언정 국가적으로 차별한 적은 없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건강한 국가와 국민을 만들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해로운 것은 해롭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다면, 국가 공기관에서 담배를 만들면서 흡연의 위험성을 밝히고 있고, 마약의 문제, 각종 중독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경계하면서 예방에 힘쓰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군대 내 성정체성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차별을 이유로 문제점을 말하는 것을 '입막음' 해서도 안 된다. 이럴 경우 대다수 건전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역자발' 하는 중대한 실수가 된다.

청년연합동계수련회가 연기됨을 알립니다

"나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전 12:1)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었던 2020 예하성 청년연합동계수련회가 청년국 준비위원회의 회의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청년국 교역자들이 다음세대와 청년세대를 마지막 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청년국장 오세준 목사

국가 참전유공자 초청 신년하례회

한교연, 참전용사와 가족 3백여 명 초청해 격려

국가 참전유공자 초청 신년하례 및 위로회가 지난 1월 16일(목)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위로 격려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사랑운동본부(대표회장 박종철 목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625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와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신년하례예배와 2부 위로회, 3부 오찬과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한교연 상임회장 원종분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1부 예배는 송대섭 목사(상임회장)가 대표기도하고 이어 김효종 목사(상임회장)가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박만수 목사(공동회장)가 '민족복음화 및 평화통일



을 위해, 홍정자 목사(공동회장)가 참전용사와 가족을 위해 각각 특별기도했다.

이어 신광준 목사(공동회장)가 성경을 봉독하고 군포제일교회 마리아중창단의 특송이 있는 후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벧전 1:22-25)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이동석 목사(증경대표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설교에서 "월남전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파병될 당시 우리나라는 매우 가난했고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가난과 공산주의의 시상을 몰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정글을 누웠다"고 말하고 이는 "6.25 전쟁 때 UN군과 미군 참전용사들의 도움에 빛을 잃은 자세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세기총, 지부장 임명식 및 워크숍

말레이시아에서 제21차 기도회도 가저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지난 1월 9일(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열린연합교회에서 세기총 지부

장 임명식 및 워크숍을 진행 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 세기총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는 지부 활성화 방안과 지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증경대표회장 황의춘 목사는

선교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각국의 지부장들이 지부의 현황과 선교지의 사역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였다.

한편, 세기총 제21차 지부장 워크숍에는 세기총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 법인이사장 고시영 목사, 초대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증경대표회장 황의춘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등이 참석했다.

제21차 기도회는 지난 1월 12일(주일) 오후 2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열린연합교회에서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연합회 주요 임원들 및 주요선교사들과 세기총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는 기도회 준비위원장인 말레이시아 지부장 김기홍 목사가 환영사를 하고,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가 대회를 열었다.

예성, 제31회 목회자평생교육과정

휴양과 영적 재충전의 기회 제공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문정민 목사) 평생교육원이 주관한 '제31회 목회자 평생교육과정'이 지난 1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라비돌리조트에서 실시됐다.

'여호와께 성결' (출 28:36)이라는 주제로 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번 행사는 개강예배, 새벽강좌, 주제강의, 세미나, 종강예배 등의 프로그램으로 전체 일정이 진행됐다.

첫째날 오후 신현화 목사(총회 서기)의 사회로 시작된 개강예배에서는 이광진 장로(부총회장)의 기도와 김원철 장로(총회 회계)의 성경봉독 후 문정민 목사(총회장)가 '하나님을 가까이' (약 4:6-10)라는 제목으로 참석자



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어 운동복 목사(성결대 총장)의 축사와 이강준 목사(교단총무)의 광고가 있었고, 공제갑 원로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금번 목회자 평생교육은 목회자들에게 휴양과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운데 성결교회의 목회 정체성 확립과 오늘날 교회

의 위기상황 속에서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성경이해와 해석, 공개되지 않은 신비로운 성지 탐험, 성경적 성신성 및 성경적 의 등 실제적인 성경해석과 적용을 제시했으며, 특히 2회의 새벽강좌는 연륜이 있는 선배목사의 말씀으로 진행되어 후배 목회자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었다.

성민원, 제41기 청소년복지학교 개교

'세계를 품는 청소년' 주제로 열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소속 단체인 사단법인 성민원은 지난 1월 13~15일 군포제일교회 비전센터에서 청소년과 대학생 지원봉사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기 성민 청소년복지학교를 개교하고 청소년기의 바른 가치관 정립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웃에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를 품는 청소년'을 주제로 한 이번 청소년복지학교는 미래 사회의 주축이 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미래의 건강한 주역이 되며 복지이론교육과 봉사체제를 통해 건강한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군포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1백여 명이 등학한 이번 복지학교에서 참가자들은 사회복지 전반의 기본 이론에 관한 강의를 듣고 인근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대를 방문해 세배를 드리고 설 명절 선물을 전달하며 말벗이 되어주는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의 보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터미널선교회 2020사업 발표

하티크바 2020 프로젝트 등 추진

세계터미널선교회(대표 조창래 목사)는 지난 1월 16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종각 소재 민들레영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티크바 202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동 선교회는 이날 자체 제작한 '5천만 민족전도지'를 통해 전도운동을 전개하는 물론 3천 명의 전도전문 목회자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교회가 자체 제작한 5천만 민족전도지에는 요한복음(성경가이드), 기독교구원론(타종교의 구원과 어떻게 다른가), 부활인류(최고의) 기적, 동상에(세속주의), 해외유입이단(여호와 증인·물몬교·안식교), 국내자생이단(산전지·하나님의교회·구원회), 타종교(불교·이슬람), 무신론, 유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불신자 전도는 물론 기존신자들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선교회는 또 1월 30일(목) 모세전도단 발기인 모임과 여호수아 전도단 1차 모임을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에서 갖고, 그밖에 외국인전도단을 위한 전도단, 은퇴장로 주축의 전도단, 여 목사 전도단, 직장인 전도단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 선교회는 발기인 모임에 이어 사모들이 참여하는 구국기도회 시간도 갖고 통일과 민족구원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밝히고 각 교단의 대표 사모와 단체장 사모들이 한 자리에 모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본월드미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업무협약

BAM 전공학생들 위해 장학금 약정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이하 ACTS)와 (재)본월드미션은 지난 1월 14일(화) ACTS 6층 회의실에서 한국 교회의 비즈니스선교 개발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재)본월드미션의 최복이 이사장은 ACTS 선교대학원의 비즈니스선교학(Business As Mission) 전공 학생들을 위하여 총 7,500만 원의 장학금을 약정했다.

최복이 이사장은 2002년 본죽을 창업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 1,800여 개의 매장을 가진 본죽 프랜차이즈의 창업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기와 어려움을 기도로 돌파해 온 기독교 실업인으로,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사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최 이사장은 (재)본월드미션을 통해 선교사 케어, 게스트 하우스, 선교사 자녀 장학금,

선교사 캠프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한국 선교사들을 섬겨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 이사장은 2016년 10월부터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지속가능한 선교모델로 해외 선교매장을 선교지에 새우기 시작해서 현재는 일본, 중국, 태국, 우크라이나, 몽골, 필리핀,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본죽 선교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21세기 해외 선교에서 비즈니스 선교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한 최 이사장은 2020년 1학기부터 시작되는 ACTS 선교대학원에서 비즈니스선교(BAM)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면학을 장려하고 한국 교회의 비즈니스선교(BAM) 발전을 위해 큰 금액의 장학금을 하 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ACTS에 기탁하기로 했다. 또한 최 이사장은 ACTS 학생들을 위해 비즈니스선교사 인턴의 기회도 제공할 의지도 밝혔다.

(재)본월드미션과 ACTS는 1월 14일에 서로 교환한 양해 각서에 기초해서 향후 한국 교회의 비즈니스 선교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지구촌 곳곳까지 복음전파 사명감당 다짐

(사)지구촌기독교총연합, 신년하례예배 드려

(사)지구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노아 목사, 사무총장 이성현 목사/이하 지구촌)는 지난 1월 17일(금) 오전 11시 서울 관악구 낙성대 소재 새중앙교회(담임 김노아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지구촌 곳곳까지 전파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사무총장 이성현 목사의 사회로 선임상임회장 한순용 목사의 대표기도, 지문위임 김광복 목사의 대표기도, 찬양사(여자 김다혜·이재진·김민선의 은혜로운 찬양, 대표회장 김노아 목사의 설교, 고분 김광호 목사의 축시 순으로 진행됐다.

김노아 목사는 계 3:1-3 말씀을 본문으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주와 같이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두움의 아들에게는 도적 같이 임하지만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 같이 임하지 못한다."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빛의 아들인 우리는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

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예배는 상임회장 고종권 목사의 축사, 이기주 목사의 헌금기도 후 김노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예배 후 연합회 회원들은 오찬 및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우리 마을 공감음악회 참여교회 모집

"지역교회가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고, 더불어 배움이 주관하여 진행되는 '2020 우리 마을 공감음악회' 참여교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우리 마을 공감음악회'로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역의 15개 교회에서 2회씩 모두 30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사회별 교류 확대와 지역(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교회 선정 방법은, 우선 마을음악회 개최를 희망하는 교회가 한교총 홈페이지

(www.uock.org) 자료실에 있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장소선정위원회>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전국 15개 교회를 선정하는데, ①지역별로는 서울-4개, 인천-경가-3개, 대전-충청-2개, 대구-부산-울산-경남북-2개, 광주-전남북-2개, 강원-1개, 제주-1개로 총 15개이다. ②선정 기준은 본 음악회 기획과 운영 정신에 동의하며, 300석 이상의 객석을 갖춘 교회로서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한 교회로 한다.

우선 선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체

(시, 군, 구 단위 행정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지원, 문화지원, 복지지원 등의 사업 실행 실적이 있는 교회. ②교회 구성원이 음악회의 취지에 동의하여 개최와 주민 참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교회로서 최소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음향시설 등의 공연 여건을 갖춘 교회, 단, 교회 밖 공간(공원 등)도 가능하나, 장소 대여 및 시설비는 교회에서 부담해야 함 ③음악회 운영을 위한 운영지원비(총 경비의 약 20% 자부담) 지원 가능한 교회이다.

부흥사회, 신년축복 부흥성회 개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회장 김기진 목사)는 지난 1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3박 4일 동안 헬몬산기도원(김남순 목사 시무)에서 신년축복 부흥성회를 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집회 기간 동안 강사로는 정석현 목사, 임형순 목사, 오승욱 목사, 김인찬 목사, 조은혜 목사, 기호선 목사, 김기진 목사, 오세준 목

사, 성기찬 목사(부흥성회 날짜 순서)가 나섰으며 특히 마지막 날에는 총회장 신재영 목사가 강사로 나서 집회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의 성령충만을 축원했다.



신년하례회 및 나라와 지역복음화 위한 기도회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지난 1월 22일(수) 오전 11시 온양그랜드호텔 코스모스에서 '2020년 신년하례회 및 나라와 민족과 지역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에 앞서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택민교회)의 사회로 드린 예배에서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온양은혜와진리교회)는 환영사를 통해 "지난 한해를 고루 4:8 말씀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협력해주셔서 매월 끊이지 않고 기도회를 가졌는데, 금년에는 국가 존망의 선저가 있으니 더욱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사문성결교회)의 대표기도 후 김소윤 감독(온양온전감

리교회 원로)이 수 1:6-7 말씀을 통하여 '형통의 비결'이란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김 감독은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우심이 늘 함께하였음을 보게 된다.

올 한해 승리를 원한다면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형통한 길을 가는 비결"이라며 "또 하나 무한한 자원을 얻는 길은 말씀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것이 형통케 하는 비결이다. 이 비결을 깨닫고 누리는 목회사역과 삶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2부 순서로 상임회장 임용석 목사(아산중앙장로교회)의 인도로 열린 기도회에서 먼저 통성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

여 공동회장 황기식 목사(동산교회)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상임회장 조이철 목사(아산성결교회)가, 아산시복음화와 교회연합을 위하여 공동회장 온재천 목사(광혜교회)가, 그리고 아산시 지도자들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분 임기석 목사(배방감리교회원로)가 기도하였다.

이어 3부 순서는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삼광교회)의 사회로 강상철 목사(시온감리교회원로)의 격려사와 이명수 국회의원(자문위원)의 축사와 아산시 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김병완 목사(배방중앙침례교회)의 축사 후, 참석자 전원이 서로 악수례를 나눴다. 이어 재무 관인숙 목사(벤엘교회)가 오찬기도를 하고 준비된 식사를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 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 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연합회장

상임회장

사무총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김병완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안홍규 목사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지도위원

부회장

사무총장
협동총무
후원회 회장
후원회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유희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김영애(아산시시장), 김항구(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

사무총장

안홍규 목사

최규명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노섭 목사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조이철 목사

정종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윤경현 목사

김성권 목사

정병환 목사

고영기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이기연 목사

안홍규 목사

총무

오세환 목사

서기

정진학 목사

회계

김이레 목사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준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수희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정해곤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후원계좌

생명의 말씀



이인규 목사

· 교단 서기 역임
· 경기서지방회 중경회장
· 아세아순복음교회 담임

우리 주님의 생은 고난의 생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팔구유의 탄생으로부터 해뿔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에 피난한 것,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로 성장한 것, 삼 년의 공생애의 고생, 최후의 십자가의 고난 등 모두 고난으로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1. 먼저 인성을 가지시고 고민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서는 여러 제자들에게 나의 기도 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면서 한 곳에 있게 하고, 세제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기도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놀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막 14:34)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놀라시며, 두려워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에 대해서 불안하고 슬퍼하며 고민하였습니다.

요 8:57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아직 오심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삼심세 된 예수를 오심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영 육간에 병든 자를 위해 동정하시며, 죽어가는 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사 애타고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육체는 피곤하고 쇠약해져서 마치 오십 살이나 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주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민이 컸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인성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2. 진액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돌 던질 만큼 더 가셔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였습니다.

주님은 극도의 고통과 함께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몸에서는 진액이 빠졌는데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흐르는땀에 피가 함께 섞여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서는 하나님 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 짐을 대신 지기 위하여서 그 몸에서는 생명의 액체를 쏟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수난의 기록 중에서도 가장 애쓰시고 슬퍼하시던 때는 이 갓세마네 동산의 밤인 것입니다.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셨기에 그렇게 뜨겁고 진한 땀이 피와 같이 흘러 내렸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힘써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나라와 민족의 자유민주평화통일과 복음화를 위해, 교계와 교단을 위해, 교회와 이웃을 위해 간절히 눈물과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3. 험한십자가를 처절하게 지고가신 주님의 고난을 바라봅시다.

갓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신 주님께서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으신 후에 흉포를 입으시고, 털시의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갓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피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은 이미 육신적으로도 기진맥진한데다 법정에서 갖은 고문

으로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이었을 텐데 거기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니 넘어지고 쓰러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더 이상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로마 병정은 구레네 시몬을 붙잡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으나 분명히 주님께 도움이 되었고, 또한 그 자신과 가정에는 구원을 받고 축복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바라봅시다.

4. 십자가에 달려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마침내 주님은 골고다에 이르러 십자가에 달려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가시 면류관 때문에 선혈이 흐르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었으니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군병들은 그것도 부족하여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십자가에 파열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못에 박힌 주님의 손은 소경의 눈을 아무만지면서 소경을 뜨게 하였던 손이요, 그손은 어린아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손이며, 각색 병자를 고쳐 주시던 손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손이요, 오천 명

을 먹이신 손입니다. 축복과 은혜를 주시던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또 못에 박힌 주님의 발은 어떤 발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찾아가신 발이요,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 발이며,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려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발입니다. 이 귀한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구리까지 찔림 당하신 주님의 고통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시는 엄숙하고도 거룩한 장면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극한의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평화와 자유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었으며, 죄로 인한 병든 우리의 영혼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세상의 욕심, 세상의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곤해도 낙심치 않으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적인 기독교 언론과 단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므로 법정에서 그 동안의 잘못을 심판 받은 상황이 된 것이다.

뉴조는 자신들의 언론 소개에서 거창하게 4대 비전을 제시한다. 그 내용은 교회일치의 갈잡이, 교회 개혁의 나침반, 평신도의 작은 등불, 교회와 세상의 가교역할을 말한다. 그러나 뉴조는 한국교회를 계속 흔들고 있고, 그들의 복음적 가치와 올바른 신앙적 정서에 대한 나침반은 고장 났으며, 교회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교(架橋)를 끊어놓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 어떤 편향적이고 보편타당한 인권을 도외시키는 보도 행태는 길 잃은 언론의 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뉴조가 올바른 기독교 언론의 목적과 비전을 성취하려면, 지금의 반기독교, 다원주의, 친동성애적 보도 행태를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기독교 언론'이라는 건판을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로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언론이라'고 비판하였다.

급기야 지난 해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에 장 합동, 예장 고신, 예장 합신에서는 뉴조의 반기독교성과 동성애 옹호 문제 등에 대하여 교단차원에서 조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지난 해 1월에는 <살롱나베>가 논평을 통하여, 교회를 비방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논조를 견지하는 언론이 기독교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뉴조는 이런 보도 관행을 바꾸지 않고 있다가, 양심적이고 신

언론의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본 것이다.

뉴조의 이런 뱀다간 활동에 대하여 교계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 및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2월에는 <한국교회수호결사대>가 뉴스앤조이 앞에서 규탄대회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며칠 뒤에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뉴조를 '한국교회를 향하여 작은 비리에도 혹독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며, 자신의 비리에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질타하였다. 또 '교회를 해체시키려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한 젠더이데올

‘뉴스앤조이’를 보면 즐겁지가 않다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열망한다는 목적으로 창간되어, 지난 20여 년간 한국교회에서 활동해 온 '뉴스앤조이' 대표 강도현, 이하 뉴조가 지총수를 두어 위기를 맞고 있다.

뉴조는 그 동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한다며,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언론 운동에 열의를 다해 왔다고 주장한다. 또 건강한 목회와 바른 신앙을 확산하는 사역을 하겠다고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교회를 허물고 깎아내리며, 한국교회 명신 주기를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즐거움(news & joy)을 누려왔다.

뉴조는 교회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기

독교 정서와 맞지 않고 무엇보다 성경에 반하는 주장들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혼란케 하였다.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와 젠더를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반동성애 세력을, 가짜뉴스 배포 및 유독한 세력으로 지목하여 보도한 것은 큰 과오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5일, KHTV, GMW 연합, 그리고 한국가족보건의료의 대표에게 뉴조가 각각 1천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은,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언론 및 활동기를 '가짜뉴스 배포자'로 지목한 것은,

동정

한교연, 코로나사태 기도요청



한국 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해결을 위한 교계와 사회의 협력, 한국교회의 기도를 요청했다. 한교연은 성도들을 향해 “신종 코로나로 인해 치료중인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완쾌되고 이 위기를 모든 인류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태국 치앙마이 나사렛해외봉사단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는 지난 1월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간의 여정으로 태국 치앙마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방문해 교육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나사렛대학교는 모든 재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나눔 품성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장만희 한국 구세군 사령관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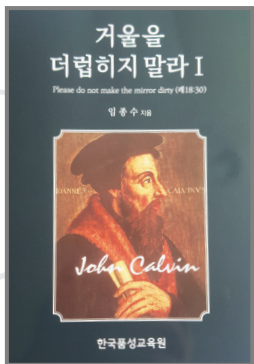
장만희 한국 구세군 제26대 신임 사령관이 지난 1월 6일(월) 취임했다. 장 사령관은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 구세군 성안재활센터(ARC) 대표를 지낸 중독치유 전문가다. 장 사령관은 “소외된 중독자와 노숙인에게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전하는 게 구세군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고신대복음병원 해외 의료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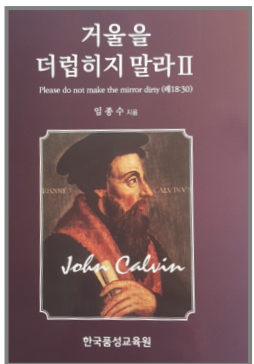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최영식) 해외 의료봉사팀은 지난 1월 15일(수)부터 29일(수)까지 페루와 필리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15년째 이 지역을 방문하여 의료봉사를 하고 으며, 의료봉사팀 신성훈 교수(혈액종양내과)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해 '제9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을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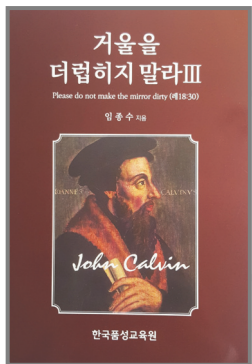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든 어떤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굶,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적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제작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동성애 비판 가짜 뉴스’ 보도 뉴스앤조이 명예훼손

동관연과 동관교연은 동성애 비판을 가짜 뉴스라고 보도한 뉴스앤조이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월 15일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관연’)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관교연’)은 동성애 비판을 가짜뉴스라고 보도한 뉴스앤조이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는 한겨레신문이 2018. 9. 27. 에스더기 도운동을 ‘가짜뉴스 공장’으로 낙인찍고, 주요 운영·배포자 25명 및 유튜브 유료 채널 20개를 ‘가짜뉴스 유포자’, ‘가짜뉴스 유통 채널’이라 주장한 것을 인용하면서 앞장서서 반동성애 활동가·단체들을 악의적으로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폄하하였다. 이번 판결은 동성애 비판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뉴스앤조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은 첫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2월 19일에는 한겨레신문에 대한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다음은 발표된 성명의 내용이다.

【성명서】

동성애 비판을 가짜 뉴스라고 보도한 뉴스앤조이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는 지난 1월 15일 뉴스앤조이대표 강도현, 이하 ‘뉴조’)는 김지연 약사, GMW연합, ktTV를 ‘가짜뉴스 유포자’, ‘가짜뉴스 유통 채널’ 등으로 적시한 기사 부분을 각 삭제하고, 원고들에게 총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한겨레신문은 2018. 9. 27. 에스더기도운동을 ‘가짜뉴스 공장’으로 낙인찍고, 주요 운영·배포자 25명 및 유튜브 유료 채널 20개를 처음 기사화하여 반동성애 활동가들과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뉴조는 이를 인용하여 앞장서서 반동성애 활동가·단체들을 악의적으로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폄하하였기에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은 첫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자칭 교회 개혁을 위한 기독교언론기관이라 주장하는 뉴조는 소송진행기간 내내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반동성애 활동가·단체들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혐오 메시지를 전하는 진영

으로 규정하고, 동성애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도 허위·왜곡·과장 정보라며 비난하였다. 이번에 법원은 뉴조를 “반동성애운동이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과 반대진영에 있는 언론기관”으로 판결문에 적시하여 뉴조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혔다.

결국, 뉴조는 교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언론기관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며, 동성애를 지원하는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동성애를 강력히 반대하는 한국 주요교단들의 결의에 반하는 이단옹호언론임이 사회법정을 통해서도 밝혀진 것이다.

뉴조는 지금이라도 특정 이념에 불합치 반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뒤돌아보고 그 동안의 반성경적 활동을 사과하고, 철저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돌이키기를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면 더 이상 ‘기독교 언론’으로 한국교회를 속여 기생(寄生)하며 성도들을 현혹하지 말고 폐간하기를 촉구한다.

2020. 1. 24.

동성애 동성혼반대 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기아대책 정태우 홍보대사, 홀몸 어르신들 위한 ‘따끈한’ 봉사활동

국제구호단체 희망진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명절을 홀로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태우 홍보대사가 일일 배식봉사 활동에 나섰다

정태우 희망진구 기아대책 홍보대사는 최근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고풍 배식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정태우 홍보대사는 직접 음식을 조리하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하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했다.

이날 배식한 고풍은 정태우 홍보대사가 협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아빠곰탕’에서 기부해 마련됐다.

아빠곰탕의 윤상용 대표는 이후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생신에 맞춰 매달 고풍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정태우 홍보대사는 “오늘 함께 식사하신 어르신들 중 80% 이상이 홀몸 노인이라고 들었다”며 “명절을 앞두고 오늘 배식 봉사가 따뜻한 위로가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교회 파송 선교사 171개국, 2019년 총 28,039명 활동 선교사 은퇴 준비, 한국 해외 선교 분야 이슈 될 것

최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http://kwma.org)에서 ‘2019년 한국선교사 파송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한국의 파송 선교사는 171개국, 총 28,039명으로 나타났다.

파송 선교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그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고, 선교사 파송국가는 총 45%의 선교사가 상위 10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국가별로는 A권역, 미국, 일본, 필리핀, 태국의 순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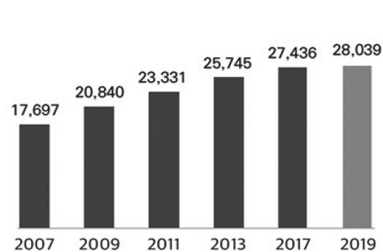
특히 전체 선교사 중 아시아권에서 활동하는 선교

사가 52%를 차지하고 있어, 대륙별 선교사 비율은 아시아 지역이 5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북아메리카 11%, 한국 9%(한국 본부 지역사+안식년/수습 선교사 등), 유럽 9%, 아프리카 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아시아 중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선교사들의 연령대는 ‘50대’가 35%로 가장 많고, 은퇴를 앞둔 ‘60대’ 선교사(446명)가 전체 선교사 중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선교사 은퇴 준비가 한국 해외 선교 분야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림】 한국의 파송 선교사 수 (연도별)



*자료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2019 세계통계 보고서, 2020.01.17.
** A 권역 : 선교사 파송 국가 중 비호출 지역
*** 동남아시아 : 동남아 국가 중 비호출 지역

【표】 국가별 선교사 수(2019년, 상위 7위)

순위	국가	활동선교사 수 (명)
1	A권역**	2,952
2	미국	2,281
3	일본	1,656
4	필리핀	1,503
5	태국	965
6	동남아 1국***	891
7	캄보디아	852

타교단가입자 연수교육

- 일시 : 2020년 2월 3일(월), 2월 10일(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장소 : 총회본부
- 문의 : 02)2675-5181~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1회 한국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개최 ‘한국교회여,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자’ 주제로

한국교회연구소(소장 정일웅 박사)와 (사)한국기독교언론진흥회가 주최하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수을 목사)가 주관한 제1회 한국교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한국교회여,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지난 1월 14일(화)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개회예배에서는 한정중 대표회장 김수을 목사가 설교했고, 이어 한정중 부총회장(의회)의 인도로 △한국 장로교의 연합과 일치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의 영적 각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격적 발표가 시작돼, 정일웅·김영한·박노진·장성익 박사가 차례로 강연했다.

먼저 ‘한국교회의 위기극복: 새로운 교회연합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정일웅 박사는 “현재 한국교회 연합에 가장 큰 걸림돌은 목회자들의 개교회주의와 개교파주의”라며 이 같은 인식의 원인을 “자전·지치·자립”으로 요약되는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남용에서 찾았다.

정 박사는 이 선교정책에 대해 “복음이 보여준 그리스도의 자유에 기초한 것이 분명하다”(갈 5:1)면서도 “한국교회가 그것을 남용함으로써 ‘장장의식과 소유욕에 사로잡혀 개교회와 개교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 이웃교회와 타교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교회라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즉 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이웃의 자유를 위한 공간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이 문제인 것”이라며 “그것은 협동과 섬김, 양보와 절제, 용서와 화해를 통한 연합정신을 상실한 인간성(하나님의 형상) 위기의 문제”라고 했다.

정 박사는 “상대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경험하면서도 성도의 교제를 단절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되묻고, 이제부터는 서로의 공통점들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며 “그러한 일은 먼저 지금 심각하게 분열한 보수교회의 군소교단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8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약 200개 이상의 교파들로 분열했는데, 분명한 분리 명분이 없으면 다시 원래의 집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 힘써야 할 과제로 △복음 전파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 △이단 문제 해결 △대립되는 신앙교리를 일치시키는 작업 △대사회·대정부·대국제·대북한 입장 대변을 꼽았다.

이어 ‘한국교회 개교회주의 극복과 교회 공동체성 함

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 살렙나비 상임대표, 송실대 명예교수)는 “장로교회만 1980년대 이후 300여 개 이상의 군소교파로 나뉜 것은 대부분 정치적 주도권 쟁탈이나 개인주의적 소유욕에 휩쓸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교파를 뛰어넘어 신앙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서로 목제 복음 전파에 힘쓰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세속화 물결이 더욱 거세게 밀려오는 이 시대에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한국교회는 더욱 위축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 방안 중 하나로 김 박사는 ‘보수와 진보의 상호 이해 및 협력’을 꼽았다. 그는 “구원론에 있어 진보교회는 개인 구원의 중요성에 대한 진지한 신학적 성찰이 요구된다. 보수교회는 사회 구원의 필요성과 일치된 통전적 기독교 구원론의 새로운 시각으로 이 시대의 복음 전파를 교회연합 차원에서 실현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이러한 교회연합은 종교개혁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온 교파들이 하나의 교파로 통합하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파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이 시대의 복음 전파를 위해 서로 연대하고 힘을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는 도르트 신조 400주년을 기념하는 해다. 당시는 교리 정립 시기였으나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에 세속주의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 기독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교리적 외면을 넓힐 필요가 있다”면서 “감리교 뿐 아니라 같은 신앙교백을 가진 장로교단들이 목회와 선교를 위해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찾아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노진 박사(대구세상교회)는 ‘한국교회 공동체성 위기, 교회 연합과 미지침교회 지원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 박사는 “한국의 전체 교회 숫자는 정확한 통계를 알지 못하지만 약 3만 5천여 개쯤 되며, 이 가운데 70~80%가 미지침교회”라며 “이런 교회는 주로 성도 수가 적고 농어촌에 위치해 있거나 도시 빈민가 주변의 개척교회들”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갱신협의회 2017년 보고에 따르면 60%에 가까운 목회자들이 100만 원 이하의 사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로는 80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목회자들이 태반”이라며 “2019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46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미지침교회 목회자가 정외 생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했다.



화제의 신간 / ‘힘쓰기를 배우라’

뜨거운 찬양 사역자,
열정적인 설교자 서정복 목사의 신간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동이트는 새벽, 시린 손 호호불며 기도의 손을 모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의 삶을 다짐하는 남원중앙교회 새벽제단의 특별새벽기도회의 말씀이 오롯이 가슴에 와 닿는다. 믿음·소망·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목사의 특별새벽기도회 설교말씀이 수록되어 있다. 귀한 말씀이 복음의 도화선이 되어 갈급한 심령에 불타오르기를 기도한다.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지음,
도서출판 글방 예담 발행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한의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완공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교단 부산지방회 증경회장 한경집 목사와 교영권 목사 등이 참석하여 축복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폐농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실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님)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리인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0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 2020년 2월 10(월) ~ 11(화) 오전10시

장소 :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축복성회

강사진

17
일
(월)
저녁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18
일
(화)
오전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18
일
(화)
저녁



오승욱 목사
천안서북교회

19
일
(화)
오전



김백울 목사
순복음신교회

19
일
(수)
새벽



성기찬 목사
방어진순복음교회

일시

2020년 2월 17일(월)~19일(수)

오전 11시 · 저녁 7시

장소

오산반석샘물교회(담임 배길선 전도사)

경기도 오산시 누읍로 17

문의

010-3937-9389



주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장 김기진 목사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8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8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0년 3월 30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3월 19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8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신 재 영
총 무 목사 이 경 진

하나님의 인도로 미술작가의 길로

베테랑 버스운전기사 박경민 작가 ‘엄마의 이야기’ 전시회 가져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두 딸을 키우면서 상계동과 동대문을 오가는 10년 버스를 운행하는 베테랑 운전 기사 미술작가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엄마의 이야기’ 전시회가 지난 1월 8-14일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려 이곳을 찾은 많은 관객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림 그리는 버스기사 박경민 미술작가는 산악인 남편을 만나 결혼, 쉬는 날만 되면 산으로 훌쩍 떠나 버리던 남편이 히말라야를 등반 중 사고를 당해 그렇게 좋아하던 산에 잠들게 되었다.

남편의 부고(訃告)를 들은 박경민 주부는 남편 두 딸과 함께 목 놓아 울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비오는 날 버스를 탔다가 여자 버스운전 기사를 보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박 작가는 당장 대형면허를 따고 면허를 받고는 그 길로 서울 당고개에 버스회사를 찾아갔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버스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자 버스기사를 공개 바라보지 않던 시절이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냈다. 아니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극한 어려움에 처해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재능을 발견하게 하셨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다는 걸



50이 다 된 나이에 알게 해 주셨고 미술학원을 거쳐 버스기사 미술작가가 된 것이다.

박 작가는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그리움’이다. 저 그림이 시발점이 되어 다른 작품들이 나왔다”면서 “그림은 나의 분신과도 같다. 나의 마음을 그대로 그려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말했다.

이러 박 작가는 “인생에서 가장 막막했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은 버스운전기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보여주셨고 작가로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운전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성악가 ‘미라클보이스앙상블’ 창작오페라 데뷔

창작오페라 ‘아쿠아 오 비노 (Acqua o Vino)’에 특별출연

광진발달장애인지원생활센터(센터장 정연재)의 발달장애인 성악앙상블인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이 2월 15일 (토) 오후 7시 광림아트센터 정현홀에서 개최되는 창작오페라 ‘아쿠아 오 비노 (Acqua o Vino)’

에 특별 출연한다.

아르텔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주최하고 (사)한국이동음악교육협회(대표 전승배)와 광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정연재)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소프라노 김민지, 메조소프라노 장은, 바리톤 김지단, 김인휘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을 캐스팅하였고, 성악가 출신 지휘자 윤혁진이 총감독과 지휘를 맡아 탁월한 국 해석으로 연주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무대들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또한 영화감독인 송우진이 예술감독으로 함께 하여 작품의 연출력과 완성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발달장애인 성악가들의 특별출연이다. 이들은 극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 무대에 서게 되는데, 이 공연이 이들의 오페라 데뷔 무대이기도 하지만 국내 오페라 무대에서는 처음 있는 시도이다. 발달장애를 가진 젊은 예술가들이 절망적인 장애헤를 이겨내고 연주자로 거듭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본 센터의 이용자들로 구성된 ‘미라클보이스앙상블’(지도교수 윤혁진, 음악감독 김은정)은 2018년 3월에 창단된 발달장애인 성악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혼성 성악 앙상블로서 발달장애인 성악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간안내

한눈으로 보는 비주얼 성경읽기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율법을 통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완전히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만일 앞으로도 계속 그들이 율법에 대한 순종에 기초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간다면 그들은 여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머물 것이다. 구약 끝부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약속의 실마리들이 기대와 어우러져 직조되는 것을 보게 된다. 암흑 같은 포로기와 옛 언약의 실패를 벗어나 하나님은 의로운 왕, 고난받는 종, 약속된 후손, 인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본문중에서

저자/역자 : 팀 찰리스, 조시 바이어스/이희혜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20-01-13 | (187*231)mm 216p | 판매가 : 19,000원



부르심 인생의 참된 사명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

“당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당신은 답을 찾아 나설 수도 있고, 질문 자체를 회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부르심』(Called to the Ministry)은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복음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다면, 주님 자신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의로우신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하나가 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저자/역자 : 에드먼드 클라우니/이정규, 황영광 | 출판사 : 복있는 사람
발행일 : 2020-01-23 | (128*188)mm 168p | 판매가 : 10,000원



近現代史(근현대사)로 읽는 북한교회사

1992년부터 북한 선교를 시작한 저자는 통일된 한국 교회의 정립을 위해서 이에 대한 자료 발굴과 정리が必要하다고 생각하여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남과 북의 분단과 공산화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대비하여 서술하였고, 북한 지하교회 역사를 로마 박해 시대의 초대교회와 대비하여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교회 중간사적 의미로 해석하려 했으며, 통일과 남북 교회의 비전에 대해 성경을 통해 풀어냈다. 필박 속에서도 신앙에 정진하는 북한 지하교회의 산 순교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며, 실제 사례와 관련 사진들을 통해 지하교회의 실체를 생생히 볼 수 있기에 한국 교회사에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는 책이다.

저자 : 강석진 | 출판사 : 굿한출판사
발행일 : 2020-02-15 | (152*225)mm 양장 494p | 판매가 : 22,000원



하나님 음성 듣기

청년 시절의 이진항 목사는 치열한 자기 싸움에 잠겨 있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 신학생이 되어 목회로 길로 들어서기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신앙 생활하던 모범 성도였지만, 그 자신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은 아직 진정으로 삼자기를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수많은 되풀이되는 질문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해 헤매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 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죄인인지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변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고, 그 음성을 따라 살고자 애썼다. 청년 사역을 위해 떠났던 유학길에서 박사 학위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던 내면의 욕구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순종했다.

저자 : 이진항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20-02-03 | (145*210)mm 232p | 판매가 : 12,000원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선향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한근육마사지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도활오일, 상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오일, 레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향향오일, 워터그린오일
•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뭉치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운동전후/운전시/수험생/컴퓨터작업시)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 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 두방울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랜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랜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 두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길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⑦ 전나무 오리자발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어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어버터,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등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 사어버터, 마카데미아씨오일등

⑨ 젤뮈케어 림밤 (15ml)

인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러운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 사용법 : 인술, 손, 발, 각질부등에 발라줍니다.

⑩ 전나무워터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워터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워터
•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향긋한 향취가 필요곳에 뿌려줍니다.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지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지역사회 복음전파 앞장 다짐

관기총, ‘신년감사 및 총재·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 드려



관악구기독교총연합회(총재 최낙중 목사, 이하 관기총)는 지난 1월 19일(주일) 서울 관악구 예유리교회(담임목사 류병희)에서 ‘신년감사 및 총재·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관기총 대표회장 류병희 목사는 신년 인사를 통해 복음 전파에 앞장설 것을 강조하며 회원들이 연합해 관악구복음화를 이루는 데 헌신을 당부했다.

이날 최낙중 목사(해오름교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바른 목소리를 내는 시대적 사명자들이 되길 기원했다.

최 목사는 “사회가 지금 동성애 등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성경을 바탕으로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지만 교회는 다수결이 아닌 진리를 택하는 것”이라며 “관기총 회원들이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예수께 붙잡혀 성령에 매여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지는 이들이 되길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처럼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원하시는 바

를 들어주시길”이라고 강조했다.

설교 후 최낙중 총재 및 류병희 대표회장에게 취임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김성식 국회의원의 인사차 이이졌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결식아동이 많아 구청이 보살피는 데 한계가 있는데 관기총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김치와 쌀 등을 나눠주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관기총과 함께 사회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관악구를 잘 이끌겠다”고 했다.

김성식 국회의원은 “나라가 많이 걱정스러운 시점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과 장로님 및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다면 이 나라는 번영의 길 위에 서게 될 것을 믿는다”면서 “이 자리에서 뜨거운 비를 가슴에 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류병희 대표회장은 구청과 경찰 및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모범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했고, 최낙중 총재는 모범구민과 모범청소년에게 상을 주며 격려했으며, 예배는 나세웅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국내 최초! 한국인에게 신·췌장 이식받아

김벌리 씨 “나의 영웅, 유나의 고향 제주에 동백나무를 심습니다”

(제)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이하 본부)가 지난 1월 23일(목) 오전 11시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라파의 집에서 미국 유학 중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잃은 제주 소녀 故 김유나 양의 사명을 기리는 식수를 진행했다.

지난 2016년 1월 23일 제주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김유나 양(당시 19세)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

독실한 신자였던 부모 김제박, 이선경 씨는 딸과의 아름다운 작별인사를 건네고자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이들의 숭고한 결정으로 故 김유나 양의 심장은 33세의 소아과 의사에게, 폐는 68세 남성에게, 오른쪽 신장은 12살의 남자아이에게, 왼쪽 신장과 췌장은 19세 소녀에게, 간은 2세의 영아에게 각각은 77세의 남성에게 이식되었다.

(제)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미국에서 故 김유나 양의 신장과 췌장을 이식받은 동갑의 이식인 김벌리 씨를 한국으로 초청했다. 미국 텍사스주 퍼닉스에 살고있는 김벌리 씨는 어머니와 함께 입국해 지난 1월 21일(화) 저녁 제주에 도착했다.

지난 2016년 유나 양의 신장과 췌장을 이식받은 김



벌리 씨는 2살 때부터 당뇨병으로 인해 오랜 투병 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18세가 되던 무렵에는 당뇨병성증으로 신장이 모두 망가져 혈액투석에 의존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그녀에게 유나 양의 장기기증은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다. 이식 후 건강을 회복해 작년 11월에는 결혼에도 골인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김벌리 씨는 유나 양의 어머니 이선경 씨를 만나 “유나는 나에게 신장과 췌장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

물해줬다”며 “유나는 항상 내 안에 살아있다”는 말을 전했다.

“유나의 고향인 제주에 유나를 추모하며 동백나무를 심습니다!”

1월 23일(목) 유나 양의 4주기 기일을 맞아 제주 라파의 집에서 진행된 식수식에 김벌리 씨와 어머니 로레나 씨가 함께 참석했다. 또한 유나 양의 부모 김제박, 이선경 씨도 함께하며 유나 양이 남기고 간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선 홍보대사와 부가부, 홀트아동복지회에 유모차 기부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호현)는 선 홍보대사와 부가부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유모차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평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선과 부가부의 특별한 인연으로 성사됐기에 그의 미가 더욱 뜻깊다.

선 홍보대사는 정혜영 홍보대사와 함께 2007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입양대기

아동과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과 희망지원’의 여름 캠프에는 매년 시간을 내어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가부는 세계 최고의 모달형 스토리로 잘 알려진 유모차 기업으로 그동안 그리스 난민 캠프에 스토리를 기부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부가부 코리아 이소영 지사장은 “이번 기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러한 기부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홀트아동복지회 김호현 회장은 “선, 정혜영 홍보대사와 부가부의 따뜻한 선행에 홀트아동복지회가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창립

건강한 가정과 교육을 위해 조직된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이하 건전협)가 지난 1월 20일(월) 성도교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전국의 관련 사회단체들의 구성원이 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해 세계성서화운동본부, 자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42개의 사회단체들이 함께해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인권과 평등을 가장해 가정과 사회에 위기를 초래하는 세력들에 대항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하나로

모였다.

특히 건전협은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하는 사회단체들이 주를 이루지만, 천주교와 불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동일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창립총회로 진행됐다. 박진홍 사무총장(전국교회들사수하는연합)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신성한 위원장(오환건강한가정지킴이연대)이 기도하고 김상윤 목사(충남바른인권위원회 특별위원장)가 설교말씀을 전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초스피드 능력 전도

가장 힘든 전도대상자가 가족입니다. 온가족이 한 번에 세트로 구원 받는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고치려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처럼 가장 사랑하는 가족부터 구원받고 천국에 가 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 전도법으로 훈련을 받으면 그것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무기이며 대표 말씀이라는 강의를 듣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로 임하는 것을 전도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박영수 목사가 전도대상자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영접하는 자의 받을 복을 선포하고 영접기도를 순식간에 시키는 데만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전도 대상자들이 거리가낌 없이 신앙을 알려주는 모습 속에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초스피드의 시간 속에 마귀가 틈 탈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놀라웠습니다.

보기에 매우 쉽고 간단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와 받는 이, 모두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축복받고 기쁨으

로 감사할 수가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의 영원한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무리로 서로 얼굴을 보고 안아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인사는 금방 친숙하게 만들어 주는 사랑의 실연이었습니다.

다가가서 전하는 축복의 말씀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했고 안수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은 영혼마다 매우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노하우를 알게 된다면 전도의 문은 모두 열려진다고 믿습니다. 그 지혜를 전수받고 싶습니다.

전도강의 후 즉시 현장전도를 나가 1시간 동안 13명의 영혼들이 자기 신장생체를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교회에 나오거나 사업장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의 남성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교회로와 새신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서울 금호동에서
이선희 전도사 올림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모국어로 된 ‘보이는 성경’ 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태국 치앙마이 김창식, 김평강 선교사 부부

동남아시아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오직 복음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일념으로 기도하던 중 2013년 태국에 도착하여 치앙마이에서 선교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김창식, 김평강 선교사 부부.

낮설고 물 설은 더운 나라 태국에서 오직 열정만으로 선교사역을 시작한 이들 선교사 부부에게는 참으로 숭한 어려움이 이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김창식, 김평강 선교사 부부는 언어와 낯선 문화에 오히려 빠르게 적응하려고 현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들의 삶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 일인지 기도하며 열심을 다했다.

이 부부는 삶의 변화를 위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라후족(당나라 포로로 잡혀 중국에 살던 고구려 유민의 후손)을 알고 난 뒤 이들에게 사랑을 품게 되면서 동남아 국가에 흠어져 살고 있는 이들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역의 목표를 세우고 섬기게 되었다.

라후족의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이나 주일학교 자료들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라후어로 된 그림성경을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돕는 여러 손길들을 통해 라후어로 된 ‘보이는 성경’을 처음 만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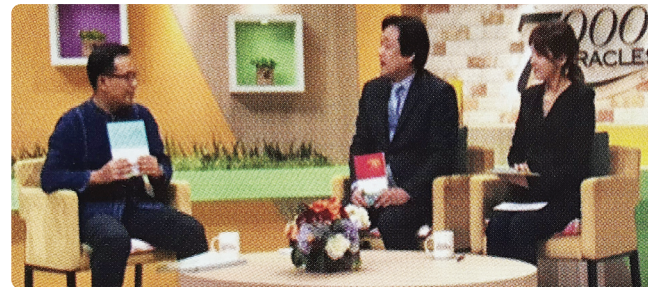
이후 태국과 주변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책을 보고 각 지의 사역지 언어로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본격적으로 ‘보이는 성경’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한국어와 영어로 된 ‘보이는 성경’을 시작으로 이들 기반으로 중국어(간체), 러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로 번역된 ‘보이는 성경’이 출간되어 현재 총 12개 언어로 된 ‘보이는 성경’이 출간 배포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어 변체, 스페인어, 힌디어, 벵갈어가 번역되어 출간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도 이랍어, 프랑스어, 몽골어, 라오스어, 일본어로 번역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태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 2만 3천여 권의 ‘보이는 성경’을 학교와 병원, 군부대에 배포하였으며 더 확장하여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에 지속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앞으로 홈페이지(www.vbiblekr)를 통한 활발



한 홍보와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를 통한 수익금으로 총 20개 언어로 번역된 ‘보이는 성경’을 60억 인구의 영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김창식 선교사가 CTS기독교TV에 출연하여 선교사역과 보이는 성경 출판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이메일 tha0691@naver.com

· 후원계좌 070-24-0390-159 (국민은행 예금주 김창식)

· 카카오톡 [tha0691](https://open.kakao.com/id/tha0691) 010-2965-1402

070-4670-140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0학년도 산·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나는 어린 나귀입니다

주님이 택해 불러내신
나는 어린 나귀입니다.
쓰임받기 위해 불러내신 어린 나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 그대로
무거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된 어린 나귀입니다.
지명하여 불러내신 나는 어린 나귀입니다.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어린 나귀입니다.

주님이 어린 나귀인 내 등에
오르셔야 했던 이유를
이제야 나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내 등에 먼저 오르셨기에
인생의 무거움이
그렇게 버겁지 않았다는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을 누리고 가는 나는 어린 나귀입니다.

쓰임받는 존재의 기쁨을, 택함 받은 존재의
기쁨을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는 오늘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어린 나귀입니다.



구역장기도회 때 마 21:1-3 본문으로
‘쓰임받는 자의 영광’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어린 나귀란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날 밤 택함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을 고백한다.

한장충,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한벗학교’ 방문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 대표회장 김수읍 목사는 지난 1월 21일(화) 탈북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대안학교 한벗학교를 방문해 예배를 인도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예배 설교를 맡은 김수읍 목사는 참석한 어린이

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되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하며 “용기를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돼라”고 격려했다.
한벗학교는 2014년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위해 설립했으며 ‘건강한 영혼과 육체’, ‘건강한 꿈

과 비전’, ‘건강한 사회인’을 표어로 교육을 하고 있다. 2019년 1월 현 박다니엘 교장이 부임해 현 학교(경기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45번길 32)로 이전 해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한벗학교 대표인 박다니엘 목사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사역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온 탈북여성들을 돌보며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 특별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벗학교를 설립하게 됐다고 학교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28명의 학생이 있는데 한국말이 서툰 경우가 많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교육의 내용을 밝혔다.

한장충에서는 박다니엘 교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했으며 학생들을 위해 간식 등을 선물했다. 이날 한장충에서는 서기 황연식 목사, 사무총장 김영일 목사가 함께했다.



사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 가져야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중국을 거쳐 오는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중국과 의 외교적인 문제에 집착하여 국민들의 인위를 위한 조치의 때를 놓치지 않 된다. 우리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정부를 누가 ‘중국인혐오’라고 비난하겠는가?
우리 국민들도 개인의 청결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며, 인종과 사람으로 이런 갑작스런 질병을 퇴치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또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질병 현상들은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한다. 우리는 이런 재앙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들의 탐욕과 범죄와 실수에 의한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겐조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하늘에 미국의 폭격기들이 날아다닐 때, 사람들이 반공포에 숨어 두려움에 떨 때, ‘당신들은 미군 폭격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들의 죄를 무서워 하라’고 하였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주시는 위기와 환난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 반면에 교회는 이런 현상에 위축되지 말고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질병 퇴치에도 앞장서야 한다.
우리 정부도 국민들의 생각을 적극 반영해야 하고, 우리 국민들도 다시 한 번 강인함을 발휘하여 국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야 한다. 중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원균이 속히 제압되고, 백성들이 평안을 되찾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한국 안보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악화됐다. 주변국들도 믿을 수 없는 시대다. 더욱이 재래식 무기만 가진 한국은 핵보유국 북한과 적어도 군사적 측면에선 ‘차원이 다른’ 나라가 됐다. 북한 핵 폐기를 이끌어낼 것이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막연한 희망을 붙잡은 채 눈앞에서 북한이 대놓고 안보리 결의 위반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도 방관하는 태도로 북핵·미사일 위협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희망고문’을 멈추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데 이념에 눈이 멀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북핵 협상이 시작된 지난 2년은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의 뜻이 없음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할 것처럼 국제사회를 속여 시간을 벌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대놓고 키웠다.
2020년에는 ‘새로운 길’로서 ‘정면돌파’를 선언하며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을 통한 핵무력 고도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북한은 제재를 풀고 핵보유국 인정도 받으려는 남은 목적을 위해 기회가 닿으면 협상에 나설 것이다.
한반도는 혼돈의 시기에 놓였다. 혼돈을 헤쳐 나가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하향한 희망에서 벗어나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국가역량을 집중해 안보를 강화하고 매일 빠지는 한미 동맹부터 확고히 해야 한다. 한·미·일 간 물샐틈없는 대북 공조를 복원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주변국을 유사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주장만 펼치는 혼자만의 오만을 벗고, 상황 판단을 흐트리는 희망적 사고와 이념적 편향도 하루빨리 접어야 한다.
한국이 처한 현실과 우리의 역량, 그리고 객관적 실재에 대한 냉정한 평가 위에서 침착하고 겸허하게 실사구시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 험난한 국제 정세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나라를 든든히 지키려는 것보다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허겁지겁 막무가내로 검찰을 흔드는 일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국민과 역사는 진실 편이기 때문이다.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도 앞단말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대에 하나님이 한국을 보호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애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간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였느니라”(사 31:4b)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취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혈몬산교회 부흥회 및 철야기도회

열방을 깨우는 혈몬산 기도의 집 (역대하 7:14)

금요 철야기도 안내

1. 나라와 민족 선교사들을 위하여
2. 교회와 목시님을 위하여
3. 자녀들(영적문제) 가정문제

원장 : 김남순 목사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 합시다!

장소 및 문의

혈몬산교회(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백곡리 산 113번지) 010)2415-2062

담임



김남순 목사
혈몬산교회 담임

선교사 기도의 쉼터, 청소년사역 기도처

혈몬산수양관교회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교회 새성전에서 부흥회와매주금요 철야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쉬어갈 수 있도록 선교사 기도의 쉼터, 청소년 사역을 위한 기도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문제해결 받고기도의 사람으로 무장을 원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ASSEMBLIES OF GOD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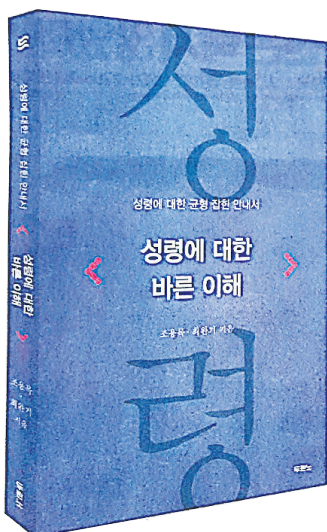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형신학으로 변질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여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 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 저 조몽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